

2025
소년부
겨울성경학교
조별 활동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장 14절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내리는 많은 선택 중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와 같은 소소한 선택도 있지만,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도 있어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인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놓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근거로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가며 선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삶의 모습과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선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실지 생각해 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에 따라 선택해야 하지요.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그 어떤 때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하는 시대, 섬기기보다 높아지려는 시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처럼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배우게 될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창 3:5)

일정표

시 간	첫째 날	시 간	둘째 날
09:20 ~ 09:50	교사 경건회	소년1부	
10:00 ~ 10:55	1과 여는예배 (마태복음 19:16-22)	09:00 ~ 09:30	교사 경건회
10:55 ~ 11:05	성경학교 오리엔테이션	09:30 ~ 10:10	3과 달는 예배
11:05 ~ 12:00	1과 조별모임	10:10 ~ 10:30	복습퀴즈
12:00 ~ 13:00	점심 식사	10:30 ~ 10:50	3과 공과
13:00 ~ 14:30	신나는 레크레이션!!		
14:30 ~ 15:00	너의 마음을 날려줘!	소년2부	
15:00 ~ 16:00	Q카드 나눔	10:50 ~ 11:20	교사 경건회
16:00 ~ 17:10	2과 저녁예배 (마가복음 10:35-45)	11:30 ~ 12:10	3과 달는 예배
17:10 ~ 18:00	2과 조별모임	12:10 ~ 12:30	복습퀴즈
18:00 ~ 19:00	저녁 식사	12:30 ~ 12:50	3과 공과
19:00 ~	집으로!		

우리의 약속

1. 예배와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기

- 시간에 맞춰 예배 장소로 이동합니다.
- 말씀 시간에는 집중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2. 서로를 존중하기

-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 나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 자신의 물건과 다른 친구의 물건을 소중히 다룹니다.

3. 안전하게 행동하기

- 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공간과 허락된 장소에서만 활동합니다.

4. 청결 유지하기

- 사용한 물건은 정리하고,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립니다.
- 식사 시간과 간식 시간에는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 화장실 사용 후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5. 문제가 생기면 즉시 선생님에게 알립니다.

마태복음 19:16-22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선택은?

마태복음 19:16-22

본문말씀

1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Q1_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은 누구이며,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하셨나요?

Q2_

17-19절에서 생명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방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마22:37-40)

Q3_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청년의 말에 예수님께서서는 뭐라고 답하셨나요?

Q4_

21절에서 예수님의 권유를 들은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나눠보세요.

Q5_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청년은 무엇을 삶의 주인으로 삼으며 가장 우선 순위에 두었나요?

적용 :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해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해요.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택하겠노라
다짐해 보아요.



1. 내 삶의 우선순위는...?!

이 세상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지요. 누군가는 재물을, 누군가는 명예를, 누군가는 의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나의 우선 순위를 세워서 적어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아요. 활동이 끝난 후, 나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인지 생각해 보아요.

<보기> 돈, 권력, 명예, 의리, 가족, 환경, 애완동물, 친구, 성적 (보기에 없는 것도 적어도 됩니다)

2. 유혹을 이겨내기!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짐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다가와요. 주일 예배 시간에 친구와의 중요한 약속이 잡힐 때가 있고, 학원 보강 시간이 겹칠 때도 있죠.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지만 어제 봤던 연예인과 휴대폰이 나를 유혹하기도 해요. 또한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맛있는 음식을 사먹고 싶은 달콤한 유혹에 빠질 때도 있어요.

이처럼 나를 유혹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3. 나의 소유? 하나님 소유!

계명을 잘지키고 있다고 단언한 청년을 향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청년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해 보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소중한 것들이 많지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다짐하며
자신의 결심을 적고, 큰 소리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요!



나 _____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항상
_____을 선택할 것을 결심합니다!



암송 말씀

"한 사람이 주인을 못할 것이니
너희가 과 재물을 경하여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24)



1과 외울 말씀
암송 찬양

우리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선한 분임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어떠한 유혹이
다가와도 이겨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35-45

높아짐 대신 섬김을 선택해요

마가복음 10:35-45

본문말씀

3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41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42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OX퀴즈_1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 자리를 달라고 한 것은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이었다. ()

OX퀴즈_2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

OX퀴즈_3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를 가진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

OX퀴즈_4

예수님은 높아지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

OX퀴즈_5

우리는 높아짐이 아닌 섬김을 선택해야 한다. ()

적용 : 예수님처럼 섬겨요



우리는 높아짐이 아닌 섬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1.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교실에 먼저 도착한 친구가 책상 줄을 맞춰주었어요.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누군가 칭찬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아도 친구들을 위해서 섬긴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즉 나를 지켜 보는 사람이 없어도, 누군가 칭찬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아도 기쁘게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섬김을 선택할 수 있나요?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고 적어 주세요.

2. 모두가 하기 싫어 해도..!

한 어린이가 지저분한 쓰레기통 주변을 청소하고 있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를 줍는 것은 모두가 멀리하는 일이지만 먼저 청소하는 섬김을 보여준 거예요.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상황', 즉 누구나 하기 싫고, 멀리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모두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섬김을 선택할 수 있나요?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적어 주세요.

3.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반장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있거나 기회가 된다면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섬김을 선택해야 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때에도 섬김을 선택할 수 있나요?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적어 주세요.

높아짐이 아닌 섬김을 선택하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져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을 선택해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의 결심을 적어보고, 큰 소리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요!



나 _____은(는) _____처럼
_____이 아닌 _____을
_____할 것을 결심합니다!



암송 말씀

"너희 는 그렇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는 가 되고"
(마가복음 10:43)



2과 외울 말씀
암송 찬양

우리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높아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높아짐이 아닌 섬김을 선택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높아짐이라는 것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높아짐이 아닌 섬김을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21-35

미움이 아닌 용서를 선택해요

마태복음 18:21-35

본문말씀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Q1_

죄를 지은 형제를 몇번 용서해야 하나 하는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Q2_

왕은 몇 달란트 빚진 종의 돈을 탕감해 주었나요?

Q3_

왕에게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찾아가 어떻게 했나요?

Q4_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 주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선택하는 우리는 미움이 아닌 용서를 선택해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외쳐볼까요?

"미움이 아닌 용서를 선택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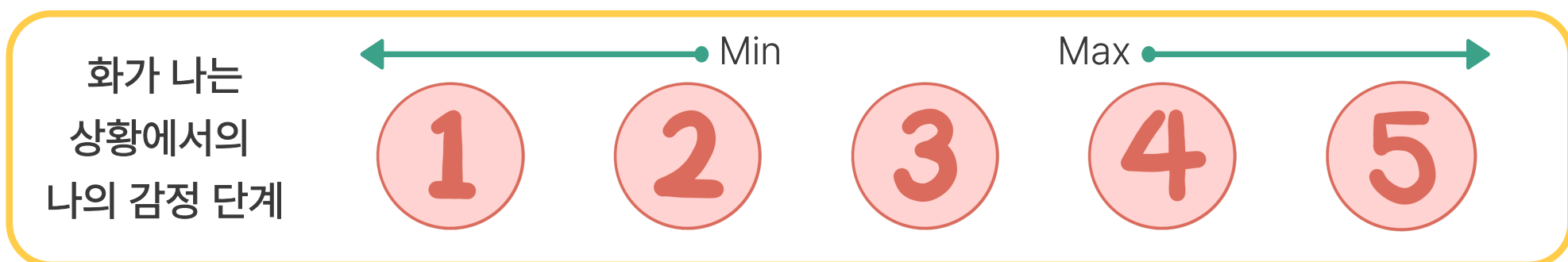
적용 : 용서를 선택해요!

“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미움이 아닌 용서를 선택해야 해요. ”

1단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화가 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예, 내 말을 무시하는 친구, 새치기하는 친구 등) 잠시 생각해 보고 화가 나는 상황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나의 감정 단계도 표시해 보아요.

내가 가장 화가 나는 상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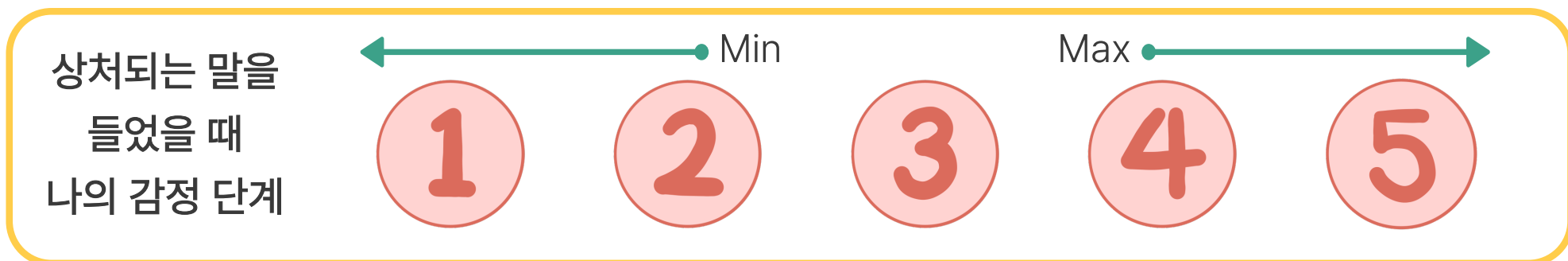


서로 정도는 다르지만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화가 나거나 속상해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선택했어요. 용서의 첫걸음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생각하면 우리도 사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2단계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나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는 친구처럼, 화가 나고 속상한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또는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나의 마음도 표시해 보아요.

내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 :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에도 용서를 선택해야 해요. 물론 '저 친구가 나쁜 말을 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해?' 하며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용서를 하면 내가 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3단계 '끝까지 용서해요!'

아주 화가 났거나 엄청나게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감정 단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5단계, 혹은 그 이상일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정도로 화가 났던 경험이 있나요?
밑에 빈 칸에 여러분이 경험한 상황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아무도 볼 수 없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니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화나고 속상한 상황에서도 용서를 선택할 수 있나요? 혹은 용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끝까지 용서해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용서해야 해요. 우리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용서해야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끝까지 용서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시
고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할 때 미움이 아닌 용서를 선택해야 해요. 용서를 선택한다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용서의 마음을 구하며 끝까지 용서해야 해요. 나의 다짐을 담아 결심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나 _____은(는) _____이 아닌 _____를 선택할 것을 결심합니다!

암송 말씀

"서로 사랑/용서하기를
하나님/예수님이
그리스도/서로서로 안에서
너희를 용서/기뻐 하심과 같이 하라"
(마태복음/에베소서 4/5장 23/32절)



3과 외울 말씀
암송 찬양

우리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을 기억하고, 용서의 마음을 구하며, 끝까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움이 아닌 용서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EMO ✦

MEMO ✦

MEMO ✦

MEMO ✦



무학교회 소년부